

안에 핀 꽃

| 김홍호 |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행하는 것이,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행하는 것이다(저자 주).



요한복음 14:10~11

너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도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몸소 하시는 일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말을 믿어라.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거기에 “나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내 안에 있다.” 10절에 그 말이 나오고, 11절에도 “나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내 안에 있다.”

10절에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말은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 11절에는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이다.” 겹쳐서 두 번씩이나 나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인데, 아름답게 표현하고 싶어서 <안에 핀 꽃>이라고 했어요.

4월 한 달 지나면서 보니까 우리 이화동산에 계속 꽃이에요. 맨 처음 목련으로 시작해서 개나리, 진달래, 계속이에요. 요새는 철쭉이 한창이에요. 어제는 체육대학 학생들과 저 벽제 뒤로 갔었는데 배꽃, 복숭아꽃이 한창이에요. 벌써 녹음이 한창 우거져서 하늘마저도 푸른 것 같은 기분을 어제 느꼈어요.

그런데 왜 이 ‘안에 핀 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나 하면, 4월 14일인데, 아침 일찍 안산에 있는데,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안산에 올라가요. 4월 14일은 집에서 새벽 한 네 시 반쯤 올라갔어요. 5시쯤 되니까 흰하게 밝았어요. 그런데 저 쪽에 보면 낭떠러지 같은 바위가 있어요. 아주 위험하게 생긴 바위가 있어요. 그 위에 해골바위라고 있는데요, 저쪽으로 낭떠러지가 있어요. 4월 14일 아침 5시쯤 되었는데 그 낭떠러지 있는 쪽을 쳐다보니까 난 지금까지 전혀 그런 것을 못 봤는데, 큰 바위에 마치 손금처럼 진달래가 짙게 폈어요. 영상 23도로 올라갔다고 해서 갑자기 폈나 봐요. 활짝 폈어요. 저는 그저 바위인 줄로만 알았는데 거기에 진달래가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아침에 아무 생각 없이 올라가다 확 내 앞에 와 닿으니까 뭔가 진달래가 내 마음

속으로 뛰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 생각이 이제는 더 저 꽃을 안 봐도 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달래 하면 언제나 우리 꽃이라는 생각이 들고, 언제나 4·19를 생각하게 되고, 또 진달래라 그러면 ‘자가를 진’ 그런 뜻도 있고, ‘죄 짐을 진’ 그리고 ‘자가에 달리신’, 진달래를 보면, 그래서 십자가를 자꾸 연상하게 되는데 ‘죄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도 생각하게 돼요.

그때 보니까 달려 있어요. 그리고 위에는 큰 바위를 지고 있어요. 그때 정말 진달래를 생각했어요. 그 이미지가 그때 콕 들어왔는데 잘 지워지지 않네요. 그래서 그날 내려오면서 마음속에 핀 꽃이라 생각했어요. 봄도 그게 아주 순간적이지요. 오래 보면서 느꼈다면야 잘 안 들어오죠. 순간적으로 느끼는데 뭔가 속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 순간적으로 느낀다는 것을 플라톤은 ‘철학은 경탄에서’ 이런 말을 쓰는데, 깜짝 놀라게 확 들어오는 거죠. 그런 들어오는 것, 그게 우리 인생에서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런 들어움이 없이는 우리 사회의 문화의 꽃으로 변할 수도 없을 거고, 또 모든 예술도 있을 수 없죠. 또 이 예술의 꽃이 우리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심어줄 수도 없겠죠. 그 어떤 찰나에 딱 비치는 그것이 우리 속에 영원한, 그런 것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끝절에 보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정말 꽃이라는 것은 잠깐이에요. 어떤 꽃은 이삼일 만에 지는 꽃도 있어요. 그러나 잠깐인 꽃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지면 영원한 것 아녜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짧지만 예술은 길다는 말도 그래서 나온 게 아닙니까. 우리 속에 ‘영원’을 느끼려면 잠깐 피는 꽃이 우리 속에 심어질 때 우리가 영원을 느끼는게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자기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것이 정말 안에 핀 꽃이죠. 그건 모세도 그렇죠. 이건 부활절 때마다 생각하는 것 아니겠어요? “

여긴 거룩한 땅이다. 네 신발을 벗어라(출 3:5)”는 말씀, 그때 모세가 깜짝 놀랄 때, 그때 모세 안에 하나님의 꽃이 피게 되었어요. 그게 소위 유대교의 시작이 아니겠어요? 혹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때 역시 우리 기독교의 시작이 아니겠어요? 그 전에야 무슨 기독교라 할 것이 있겠어요. 속에 심어진 그 꽃 때문에 오늘날까지 찬란하게 기독교의 꽃이 피어나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안에 핀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인상을 우리 마음속에 가진다는 것, 사실 인생이라는 꽃도 잠깐이죠. 옛날 로댕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얘기를 쓰는데 그런 말을 썼어요. 자기는 조각가가 되어서 밤낮 찾아다니는 것이 아름다움인데, 그런데 제일 아름다운 게 뭐가, 역시 사람이다. 사람 가운데에도 물론 여성이 아름답죠. 그래서 로댕이란 조각가는 여성의 미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 여성의 미가 얼마나 지속되나 하고 진지하게 살펴보았더니 80일 가더라요. 우리 학생들이 제일 예쁠 때가 2학년 때예요. 2학년 철학개론을 맡아보면 어떤 모퉁이에서 꽃이 확 피는지 펴요. 연꽃이 피듯이, 1학년은 솜털이 남아 있고, 2학년이 되면 꽃이 피고, 3학년은 아주머니, 4학년은 할머니. 인생은 정말 짧아요. 정말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하게 보존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옮겨심을 수밖에 없는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어디 있겠어요? 역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도 그런 게 아니겠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實相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바라는 것의 실상과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무엇이겠어요. 내속에 핀 꽃이지 뭐겠어요. 그 꽃 없이 우리가 영원이란 것을 생각할 수가 없지 않겠어요?

베토벤 같은 이는, 로망 롤랑이 전기를 썼는데, 옛날에 읽어서 거의

다 잊어버렸지만, 어렸을 때 베토벤은 별로 볼 것 없는 사람 아녜요? 어머니는 종이니까 노예 계급이고, 아버지는 삼류극장의 악사래요. 그러니까 형편없는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어머니는 베토벤이 13살 나던 해에 벌써 떠나고, 아버지는 술주정뱅이로 17살에 금치산형으로 넘어가고 말아요. 그러니 부모에게도 위로받을 수 없으니까 자연 속에서, 라인 강변의 자연 속에서 많은 감화를 받게 돼요. 또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아버지가 때리니까 억지로 하긴 했지만, 음악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는 어렸을 때 한번은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앞으로 무얼 할 건가? 그러다가 베토벤이 어떻게 결론을 짓나 하면 가난한 사람에게 음악을 들려주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꿈이 그 사람의 일생을 지배해요. 나중에는 연애하다 실패를 하지요. 그래서 자살하려고 하다가, 그 직전에 꿈이 생각나요. 내가 가난한 사람에게 음악을 들려주려고 했는데 내가 자살하면 음악을 들려줄 사람이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죽지 않고서 또 음악을 해요.

언젠가는 가난한 집 앞을 지나가는데 그 안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 가만히 듣고 보니 자기가 작곡한 곡이에요. 아! 내가 작곡한 곡이 가난한 사람들의 집에서 나온다, 얼마나 흐뭇했는지 모르죠. 자기 소원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피아노 소리가 끝난 다음에 들어가서 내가 한번 피아노를 쳐볼 수 있느냐고 물으니까, 치라고 그래서, 피아노를 보니 다 못쓰게 된, 낡아빠진 피아노예요. 그래도 거기 앉아서 자기 작곡이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들려진다는 생각에서 열심히 연주했어요. 그랬더니 다 친 후에 그 주인 두 사람이, 당신이 베토벤이 아니냐고, 당신이 지은 곡이니 그렇게 잘 치지 다른 사람이면 그렇게 못할 거라고 말해요. 그러고서 돌아오려고 하는데 달빛이

잠깐 피는 꽃이 우리 속에 심어질 때 우리는 영원을 느낀다.
꽃을 보다가, 꽃과 살다가, 꽃이 되고 말아야 한다.
산을 보다가, 산을 살다가, 산이 되고 말아야 한다.

아주 아름다워요. 그런데 주인을 보니 부인이 장님이예요. 그 가난한 살림에서 살기도 어려운데 이 아름다운 달빛조차 못 본다고 생각하니 까 동정심에 다시 주저앉아서 달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자꾸 자꾸 움직이는 손의 소리를 잘 듣고서는 빨리 집에 가서 옮겨 놓을 생각에 일어서서 외투를 걸치는데, 그 장님이 베토벤에게 “오늘 밤 달빛은 참으로 아름다웠소”라고 말했어요. 베토벤이 피아노를 치는 동안에 그 장님은 우리가 보는 달빛을 마음속에서 봤다 이거죠. 마음속에 핀 꽃이죠.

나도 「월광곡」을 곽상수 선생이 한번 들려 줘서 들어 봤어요. 그런데 별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눈 감고 듣고 있어서 나도 눈 감고 있었어요. 곽상수 씨가 나중에 어떡냐고 그래요. 말할 수 없다고 그랬죠. 난 음악을 모르니까 말할 수 없다고 했지만 음악을 아는 사람도 그 음악을 들을 뿐이지 그 음악을 본 사람은 그 장님뿐일 겁니다. 그게 나중에 「월광」이란 곡이 돼서, 26살에 연애를 했는데 애인에게 그것도 바쳐요. 그 애인이 베토벤을 배반하고 도망쳤어요. 그래서 자살하려고까지 해요. 그런데 그런 것도 고사하고, 32살 때부터 귀가 안 들리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점점 심해져요. 미술가가 눈이 안 보인다 하면 그림을 그릴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베토벤의 귀가 안 들려요. 몇 번이고 음악을 버리려고 고민해요. 그러나 그때마다 어렸을 때 지녔던 꿈, 가난한 사람에게 음악을 들려줘야지, 내가 안 들려주면 누가 들려 주냐, 그게 또 살아나고, 살아나고, 그래서 종내 버리지 못해요. 그리고는

40대에 최고의 음악가가 돼요. 「다 이루었다」, 「영광」은 40대에 작곡한 거예요. 그런데 설교를 해야지 자꾸 베토벤 애길 해서 안 되겠어요.

하여튼 자기 속에 핀 꽃, 나는 왜 그런 말을 자꾸 하려는가 하면 십자가, 부활을 자꾸 밖에만 두지 말자 이거죠. 십자가 하면 십자가 하나의 고난으로만 생각하지 말자. 그렇게 생각지 말고 이 십자가를 안으로 끌어 들이자. 부활, 그럴 때도 자꾸 밖에만 두지 말고 안으로 끌어 들이자. 그래서 예수님 부활할 때마다 자꾸 하는 말이지만,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남자가 죽었다. 그러면 유대 풍속으로는 남자가 죽으면 그 동생하고 또 결혼해야 된다, 또 동생이 죽었다, 그러면 또 그 동생과 결혼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여섯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부활 후에 어떤 사람과 살아야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모세 얘기를 하신 후에 너희 생각은 잘못됐다. 너희는 자꾸 밖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래서 일이 되냐. 그 생각을 안으로 끌어와야죠. 그래 밖에 핀 꽃을 안에 핀 꽃으로 바꿔놔야죠.

요전에도 신앙의 세계라는 것은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진실의 문제다. 안에 있는 문제지, 밖에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 밖에 있는 문제라 하면, 과학과 종교가 밤낮 싸우게 돼요. 이걸 안으로 들여와야죠.

십자가, 그래도 물론 사건은 밖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부활, 그래도 물론 밖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신앙을 통해서 그걸 안으로 끌고 들어와야 해요. 그래서 내 속에 핀 사건으로, 내 사건으로, 십자가가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이 ‘안에 핀 꽃’을 꽃 피워야지, 그렇지 않으면 암만해도 유치한 단계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면 부활, 예수께서는 십자가 지기 전에도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라고 그러지, 내가 십자가 지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 그것만 말하는 게 아녜요. 그건 밖에 있는 사건이

지만 예수는 벌써 안으로 끌고 들어와요.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해야 돼요. 밖에 있는 꽃이 안으로 피어나고, 이 안에 핀 꽃이 또 한 번 내가 되고 말아요. 산을 보다가, 산을 살다가, 산이 되고 말아야지요. 꽃을 보다가 꽃과 살다가 꽃이 되고 말아야지요. 그 세 단계가 우리 신앙생활에 상당히 중요해요. 그것 없이는 신앙이 내 것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십자가 그러면, 밖에 있는 십자가가 안에 있는 십자가가 됐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십자가가 다시 내가 되어야죠. 십자가가 무슨 밖에 있는 십자가가 아녜요, 안에 있는 십자가지. 부활이 무슨 밖에 있는 부활이 아녜요, 안에 있는 부활이지. 결론에 가면 내가 부활이지.

인생이라는 게 뭐예요? 인생이라는 게 십자가와 부활이지 별거 있어요? 하루하루 사는 게 십자가이고, 하루하루 사는 게 부활이지, 십자가와 부활이 따로 있겠어요? 오늘이 십자가와 부활이고, 내가 십자가와 부활이고, 지금 이 순간이 십자가와 부활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자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생명은 부활의 생명이요, 진리는 성육신의 진리죠.

그래서 성육신, 십자가, 부활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 십자가의 길과 부활의 생명과 성육신의 진리가 한 통이 되어서 그게 누구인가,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십자가요, 부활이요 또 말씀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하나님의 편지예요. 하나님의 편지라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은 풍기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풍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풍겨요.

인생이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만물을 지었는데.

꽃도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야스퍼스 같은 사람은 이걸 ‘하나님의 암호’라고 하죠. 하나님의 암호다. 하늘은 뭔가. 하나님의 암호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으로 우리 만물을 창조했는데 말씀 아닌 게 어디 있겠어요. 사람은 말씀으로 창조되지 않았나요. 사람도 말씀으로 창조했죠.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꽃을 보고 즐거운 건 왜 즐겁겠어요. 말씀과 말씀이 서로 만나는 게 즐겁죠. 그런 즐거움이 없이는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 수 있겠어요.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 자신이 하나님의 생명이고 길이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어디 가서 살겠어요. 다 익고 불어도 술 안에 있지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사는 게 다 하나님의 안에서지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내속에 있는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이지 뭐겠어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 안에 모시고, 이 모심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어디서 우리가 기쁨을 찾고, 어디서 우리가 생명을 찾아요. 어디서 우리가 진리를 찾겠어요.

하나님 속에 우리가 있고, 내 속에 하나님이 계셔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런 생활, 이런 생활이 믿음이라고 할 수 밖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사는 그 자체가 믿음이지 믿음과 사는 것이 따로 있겠어요? 믿음없이, 하나님의 뜻 없이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생각하고 사는 거지, 그 말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나 자신을 캐 보면 캐 볼수록, 우주를 캐 보면 캐 볼수록 부딪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지 누굴 부딪치겠어요. 그래서 야스퍼스 같은 사람은 죽음, 고민, 이런 것을 한계상황이라고 하지만, 그 한계상황에 부딪쳐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다. 돌맹이와 돌맹이가 부딪치면 돌이

나타나는 게 아녜요, 반짝하고 불이 나타나죠.

일체가 드러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지 그 영광 외에 뭐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 속에 살고, 우리 속에 영광이 빛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행하는 것이,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데 인생의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가치가 있지 그 외에 무엇이 있겠어요.(끝) 

- 이 글은 『김홍호 사상 전집 - 하나님 나라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현재 **김홍호** | 다석 유명모 선생께서 내리신 호는 현재. 1919년 2월 26일 평양에서 부친 김성항과 모친 황성룡 사이의 여섯 형제 중 다섯째로 출생. 1944년 일본 와세다대 법학부 졸업. 1956~1984년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교수 및 교목실장. 미국 버틀러대 대학원 종교사학 석사. 1986년 감리교신학대 종교철학과 교수. 1996년 이화여대 명예 철학박사.

김홍호 사상 전집

기독교 설교집 세트(전6권) (CD 1장 포함)

김홍호 저 | 사색 刊 | 40,000원



저자의 강 의와 설교 등을 모아 총6권으로 엮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논리예다가 풍부한 비유를 곁들여, 자신이 얻어낸 실천과 깨달음의 지혜를 우리에게 절묘하게 전달해온 저자가 펼쳐온 삶의 철학을 이어나간다. (구성) 제1권 『사람 삶 사랑』, 제2권 『진리로 자유롭게 하리니』, 제3권 『하나님 나라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제4권 『믿음의 힘』, 제5권 『하루를 사는 사람』, 제6권 『영원을 사는 사람』

노자 · 노자의 강해

김홍호 저 | 사색 刊 | 48,000원



이 책은 이화여대 대학교회 연경반에서 2004년 11월부터 2006년 4월까지 47회 강의한 내용이다. 교재는 권재 임희일의 『노자권재구의』이고, 부교재는 초형의 『노자익』과 저자의 보충자료들이다. 책의 구성은 노자 도덕경의 해석과 노자구의에 대한 해석, 그리고 저자가 발췌한 『노자익』(초형)에 나오는 주해들 및 기타 자료들에 대한 해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초형의 노자주 발췌 등, 종래의 노자 해설들을 집대성하여 해석했다고 볼 수 있다. 한문을 한 줄 한 줄씩 풀이하며 강의해나간 내용을 녹취하여 강의의 현장감이 드러나도록 그대로 편집했다. 한문을 전혀 몰라도 이야기를 들듯이 편하게 읽어갈 수 있을 것이다.

빛 힘 숨(십자가 부활 승천)

요한복음 강해 (전5권) 세트

김홍호 저 | 사색 刊 | 56,000원



『김홍호 사상 전집』 제8권~12권이 출간되었다. 이번 책은 『빛 힘 숨: 십자가 부활 승천』의 제목을 가진 요한복음 강해 다섯 권이다. 이 책은 일러두기에 소개된 것처럼 21장 81절로 구성되어 있다. 21장은 요한복음의 21장이며 81절은 81회의 강의를 말한다. 이 책은 저자 김홍호 선생이 1993년 3월 7일부터 1995년 6월 25일까지 이화여대 대학교회 연경반에서 매주 일요일마다 강의했던 것으로 총 2년 반, 다섯 학기 동안 해온 81회의 강의들이다. 이 강의들을 학기 별로 나누어 전5권으로 출간하였다.